

베트남 투자뉴스

제758호, '21.6.7.

kotra
하노이무역관

VIETNAM
INVESTMENT
NEWS

베트남 투자뉴스 제758호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의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58호 (6월 7일자)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3

- 올 5개월간 무역수지 3억 6,900만 달러 적자 추산
- 하노이는 7일, 호찌민은 14일까지 국제선 입국임시 중단
- 5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5년 만에 증가율 최저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원 요청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기간 단축 검토중
- 철강 가격 상승, 건설업 전반에 영향 미쳐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5

-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6

- 금주의 통관 Q&A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7

- 2021년 5월 5일 업데이트

노동허가 이슈 관련 베트남 정부 답변 11

-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 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찌민) 노동허가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어 관련 답변을 정리 및 첨부합니다.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5개월간 수출입규모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 무역수지 \$3억 6,900만 적자 추산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5월까지 5개월간 수출입 규모는 2,622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함. 수출은 1,309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 수입은 1,313억 1,000만 달러로 36.4%가 증가했으며 5개월간 무역수지는 3억 6,900만 달러 적자 기록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5개월간 총 376억 달러를 수출함(전년 동기 대비 49.8% ↑), 뒤를 이어 중국 201억 달러(26% ↑), EU 161억 달러(20.8% ↑), ASEAN 115억 달러(23.7% ↑), 한국 89억 달러(17.1% ↑), 일본 84억 달러(7.7% ↑) 순임.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한 432억 달러이고 한국은 209억 달러 (20.5% ↑)로 2위를 기록 했으며 ASEAN 181억 달러(54.2% ↑), 일본 89억 달러(14.8% ↑), EU 67억 달러(16.8% ↑), 미국 64억 달러 (6.8% ↑) 순으로 뒤를 이음.

[베트남 통계청, 5.29.]



하노이는 7일, 호찌민은 14일까지 국제선 입국 임시 중단



베트남 항공 관리국은 방역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한 국제선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 또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국제선 입국을 중단했던 호찌민 떠선녓 공항은 입국 금지를 6월 14일까지 연장함. 해외 출국 항공편은 두 공항 모두 정상운항되는 것으로 알려짐.

[Vnexpress, 5.31.]

5개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5년 만에 증가율 최저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6% 상승 및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고, 이는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11개의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중 8개 그룹의 전월 대비 가격이 증가했고,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운송업(+0.76%), 감소폭이 가장 큰 부문은 여행업(-0.7%)임. 통계청은 세계 유가 추세에 따른 휘발유 및 가스 가격 인상과 전기세 및 수도세 인상 등이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함.

[VTV 5.31.]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원 요청



자료: Baochinhphu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6월 2일 한국 대사관과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 운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짐.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한국에서 Moderna, Novanax 등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삼성 및 SK 등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진출 기업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

[Baochinhphu, 6. 3.]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기간 단축 검토중

베트남 보건부와 국가 운영위원회는 베트남 정부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는 현행 의무 시설 격리 기간인 21일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도 의무 시설 격리 21일, 의무 자가격리 7일, 총 28일의 격리를 수행해야 함.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단축은 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승인이 가능한 백신 종류, 격리 단축 일정과 시행 시기는 미정임.



자료: Vnexpress

[Vnexpress, 6.3.]

철강 가격 상승, 건설업 전반에 영향 미쳐



자료: VTV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철강 가격은 1kg 당 18,700~18,800동으로 연초 대비 약 45% 상승하고 2020년 3분기 대비 1.5배 상승함. 이는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와 코로나 이후 회복세로 증가한 철강 수요, 운송비의 증가 및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임. 통상 철강 가격은 아파트 건설비의 약 28%, 연립 주택 건설비의 35% 정도를 차지하나 철강 가격 급증으로 인해 시공사에 약 8%의 가치 손실, 약 9,000억 동의 손실을 가져옴. 이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키고 분양가가 상승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VTV, 6.4.]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

- 베트남 내 활성화된 녹색 건축 인증은 LEED(미국), LOTUS(베트남), EDGE(세계은행-IFC) -
- 베트남 녹색 건축 인증 시장은 2020년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9%에서 2025년까지 29%로 증대될 전망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종류



자료: EDGE(2019.12)

베트남에는 LEED, LOTUS, EDGE 등 대표적으로 총 세 종류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은 각 인증별로 세부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 녹색 인증 프로젝트 등록을 하고 건물의 완공 후 심사를 실시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등록 프로젝트는 건축 및 인증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최종 인증 프로젝트는 건축 및 인증을 완료하고 각 인증별 녹색건축물의 해당 등급을 부여받은 프로젝트이다.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시장 점유율

녹색건축 인증 점유율을 프로젝트 개수로 분류하면 LEED가 전체의 54% 프로젝트를 보유해 최다 점유율을 가진다. EDGE는 26%, LOTUS는 20%로 뒤를 잇는다. 반면 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나누면 EDGE(59%), LEED(30%), LOTUS(11%)순이다.



자료: Green Building Information Gateway

Green Building Information Gateway는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시장은 2020년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9%에서 2025년까지 29%로 20%p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2025년까지 272억 달러 규모의 상업지구 부동산 중에서 21억 6,000달러 규모, 1,416억 달러 규모의 주거지역 부동산 중 200억 달러 규모 역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 수 기준 2025년까지 공급 될 173만 호의 거주 가구 중에서 26만 호가 녹색건축인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 각 부처, UNDP, 녹색 건축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

지난 2020년 12월 UNDP, 베트남 건설부, 하노이시 및 각 부처 담당자들은 Green Building Week 행사를 주재하고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며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방안과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의 친환경 건물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UNDP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건물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40%를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 소비처이며,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와 건물 확장으로 인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건설부와 UNDP는 베트남 상업용 및 고층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EECB) 75개의 솔루션을 도입 및 구현 했으며 이는 총 17개 건물에서 25-67%의 에너지 절감 또는 1만 1,54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녹색 인증 제도 해외 진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

‘녹색 건축 인증의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운영체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 건축 인증 기준(G-SEED)의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한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국내 설계사 및 건설사의 동반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KOICA 등이 실시하는 ODA사업 증가로 해외에 한국의 G-SEED 제도가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녹색건축 인증 기준 및 절차의 해외 적용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사 및 설계사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아직까지 LEED(미국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위주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하여 인증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LEED, 세계은행 IFC의 EDGE와 베트남의 자체 녹색 건축 인증제도인 LOTUS 현황을 분석 및 참고하여 한국의 G-SEED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한다면 한국의 건설 및 설계 프로젝트 베트남 진출과 더불어 한국의 G-SEED 인증 제도도 공동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의 건축 설계 사무소 및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 진출 염두에 둘 수 있어

녹색 건축 인증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인증이 이뤄진다. 일본의 건축사무소인 SASAKI는 호찌민 스마트시티 디자인 공모전에서 친환경 스마트 시티 설계 프로젝트에 입상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축 사무소가 설계 단계에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여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한국의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이 자체 수출을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TA 관련 Q&A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베트남 수입요건 **

Q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가요?

A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합니다. 베트남에도 식품등록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제사항은 법률 규정상 수입자의 주도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한국 수출자가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며, 귀사에서는 이러한 제반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절차 개요

·샘플 송부 → 품질검사 → 식품등록
→정식수출 → 식품검역 → 수입완료

샘플 수입 후 품질검사

·샘플을 베트남으로 송부하여 수입자로부터 품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ISO 17025에 부합하는 공인 검사소에서 품질검사 진행(베트남 검사 기관 : Vinacontrol, Quatest)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안전서류 발급

수출 전 식품안정성 공표 및 등록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식품안전성에 대해 공표하고 베트남 보건부에 식품안전성 공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선언(Self-Declaration)

기업자체적으로 식품안정성을 공표한 후 보건부에 등록하는 방식(대부분의 식품, 첨가제, 식품용기 등)

2)제품선언(Product-Declaration)

베트남 행정기관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공표한 후 등록하는 방식(건강보호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 이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업체의 GMP 인증 서류를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신고해야 함

·본 절차는 수입자 주도로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일부 서류는 수출자 제공)

필요 서류

- ① 등록신청서 : 양식에 맞게 수입자 측에서 작성
- ② ISO 17025 기준 충족 식품안전서류(베트남 기관에서 샘플 통하여 발급 가능)
- ③ 자유판매증명서(CFS) : 모든 품목 필수이며, 한국 식약처 운영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WWW.FOODSAFETYKOREA.GO.KR)
- ④ 위생증명서 : 식물 조제품 등은 제출대상이며, 한국 식약처 운영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가능
- ⑤ ISO 22000, GMP 인증서류, HACCP 인증서류 등 각종 인증서(수출자 제공)
- ⑥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품목별 성분 관련 자료 등

하노이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주요 경제 지표

2021년 5월 5일 기준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049	71,578.13	120.00	248.65	1,483.73
일본	4,690	62,911.19	54.00	1,796.34	2,513.69
싱가포르	2,681	61,461.68	56.00	4,413.80	4,846.01
대만	2,807	33,861.02	20.00	75.74	174.82
홍콩	1,970	26,692.62	31.00	774.91	867.27
버진아일랜드(영)	870	22,190.61	8.00	78.75	146.29
중국	3,192	19,629.00	61.00	576.19	1,082.49
말레이시아	647	12,947.27	3.00	8.56	21.41
태국	611	12,730.07	4.00	53.86	163.72
네덜란드	374	10,337.39	6.00	86.26	136.00
미국	1,093	9,571.60	15.00	148.77	180.99
전체 합계	33,294	393,325.49	451	8,456.17	12,251.11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연번	구분 산업	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80	231,167.91	175	2,408.04	5,189.40
2	부동산경영	953	60,925.45	17	579.16	778.42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3	33,561.52	13	4,990.52	5,058.39
4	호텔, 외식서비스	893	12,521.70	4	0.35	36.22
5	건설	1,756	10,681.80	8	4.62	9.81
6	도소매, 유지보수	5,296	8,805.32	124	284.78	464.29
7	물류운수	884	5,498.99	14	125.04	158.05
8	관광	108	4,897.76	-	-	1.21
9	교육, 양성	592	4,419.71	8	7.40	39.17
10	정보통신	2,355	4,010.26	30	4.39	40.59
11	농, 임, 수산	503	3,683.19	1	7.65	71.59
12	예술 오락	137	3,391.27	-	-	0.21
13	기술과학전문	3,583	3,835.02	49	41.82	288.59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	1.01	16.53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19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7	977.10	7	1.38	8.01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	-	1.73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49.39
19	기타산업					
	합계	33,463	394,916.75	451	8,456.17	12,251.11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요 경제 지표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4
수 출	2,447.2	2,634.5	2,814.7	1,039.0
수 입	2,375.1	2,535.0	2,624.0	1,026.0
무역수지	72.1	99.5	191	13.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18,371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9,506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15,85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12,001
신발류	16,297	18,299	16,551	6,392
수산물	8,831	8,572	8,384	2,386
목제품	8,855	10,526	12,323	4,988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3,453
철강제품	4,558	4,160	3,035	2,674
채소	3,822	3,764	3,259	1,347
기 타	67,951	71,337	76,793	26,930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103,901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4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2,0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4,83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6,012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4,231
철강제품	9,896	9,485	4,526	3,732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3,805
유류제품	7,614	1,047	1,056	395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2,822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2,567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2,080
기 타	86,801	98,960	100,175	40,081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주요 경제 지표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22,235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12,594
3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4,883
4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5,174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2,872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1,911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1,696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1,710
9	영 국	5,424	5,776	5,758	4,955	1,468
10	태 국	4,786	5,494	5,272	4,917	1,452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22,406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78,401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24,338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12,644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5,207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4,996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3,723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3,157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2,125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1,649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1,040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1,582
	기 타	38,395	46,523	48,341	49,833	15,146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75,607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주요 경제 지표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3
수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2,764(6.3)
수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6,928

자료원 :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2,998(-7.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2,410(30.8)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800(-1.2)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559(-1.5)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240(-16.5)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525(28.7)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264(-14.2)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201(-2.5)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287(0.6)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211(-14.1)
기타	18,808	15,874	16,187	14,998	4,269
합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2,764(6.3)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1,365(-3.7)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845(4.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109(-55.6)
신변장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335(9.1)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186(20.0)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608(148.1)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136(11.9)
산업용 전자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172(33.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134(-6.2)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134(29.8)
기타	5,279	6,197	6,330	6,473	1,812
합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 ·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 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 · 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 · 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 · 조직의 대표자 · 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기관 · 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 (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 · 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전공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대,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 · 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중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 · 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 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습니다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 · 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 안내하겠습니다.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